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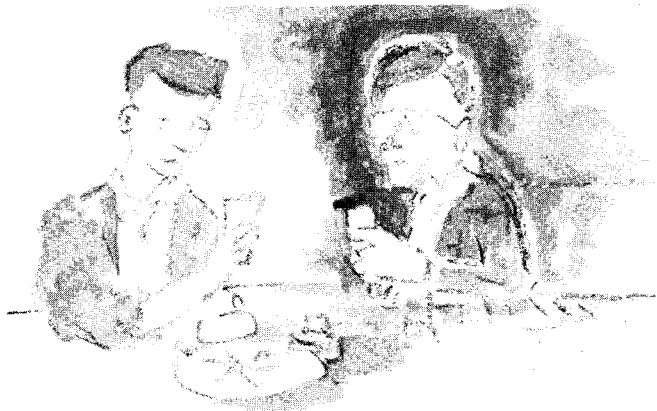
## 용기만으로 극복되는 소외

김 성 훈 / 생명의 전화·간사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외현상”이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불리기도하는 소외와 고독의 문제는 인간 본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느끼는 환경적 요인에 근거한 것도 무시될 수 없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유형 무형의 사회구조에 속하게 된다. 이 소속된 단체나 사회 속에서 여러 형태로 기여하고, 보람을 얻고 자기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해가는 현실은 자칫 개인을 무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도태시키기도 한다. 그것은 가정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 구성원 간에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곧잘 무시해버리는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청소년 문제로 노인 문제로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로, 더 나아가 그들이 속한 학교나 직장이나 기타 여러 사회에도 파급되어 서로 믿지 못하는 등 인간적 교류보다는 생존을 위한 투쟁의 관계로 악순환을 거듭한다.

무엇이 소외의 모습이나를 이해하기

위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어느 중소기업체의 과장인 P씨는 직장생활에 점점 자신을 잃어간다고 호소해 왔다. 전에는 매일같은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성적으로 일하였고 그 덕택에, 꼭 그것 때문에 열심이진 않았지만 여하튼 직장에서 인정받고 순조로운 승진을 하여왔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점차 후배들에 치받이고, 윗사람들에게 눌린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부하 직원들은 자기가 없는 동안에는 화기애애한 대화를 하다가도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쥐죽은 듯 고요하여 마치 자신을 따돌리는 듯한 심한 불쾌감을 가진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다. 직장 생활이 다 그렇듯 사무실에 윗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그렇고 그런 것이지 하고 넘어갈 줄도 알았다. 그러나 또 한가지 언제인지 자기는 제외한 채 직접 부장의 지시와 결재로 이루어지는 일이 눈에 띄게 나타나더니, 심지어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도 자신은 모르는 일조차 생기기곤 하였다. 간부사원끼리, 혹은 아래직원끼리 회식하



는 자리에서도 점차 제외되기 시작되는 눈치이고, 자신의 의견도 예전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현상적 소외에서부터 내면적으로는 자신감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점차 심한 열등의식까지도 생겨났다. 가난에 쪼들려 살아온 어린시절, 고학으로 가까스로 졸업한 대학, 그것도 세칭 일류는 못되었다는 것도 새삼 걸리고, 이 나이쯤에 자가용은 커녕 지옥같은 지하철에 시달려 출퇴근하는 자기 모습 속에서 요령껏 살아가는 세대와 동료에 비교되는 서글픔이었다.

집에서도 직장밖에 모르는 남편으로, 간신히 꾸려갈만한 월급봉투로 평가되고, 무엇하나 자랑스러울 것없는 아버지로서 부끄러웠다.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나이 탓인지, 아니면 정말 소외되는 것인지.....

지극히 평범하게 일어나는 한 사례일 뿐이다. 하지만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이다. 어느 국민학생은 하찮은 운동화-친구들은 다 유명 메이커의 고가품인데 자신은 싸

구려(?)인 때문에 느끼는 열등감과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는 커녕 배부른 소리라고 매맞고 가출하였다. TV 코메디에 나오는 유행어를 못쓰거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 배우나 가수에 대한 정보가 어두워도 대화 상대가 되지 못하는 세대와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화를 해주지 못하는 부모에게서 심한 소외감을 느껴 느닷없이 탈선 현상으로 뛰쳐나간 학생들도 의외로 많다. 전교 1등 자리를 놓치고 자살한 중학생도 생겨나는 세상이 아닌가. 지난번에도 말한 서로 이해해 주지 않는 부부도 큰 문제다. 남편은 내 쉴 곳은 가정이랍시고 그냥 쉬려고만하고 좀 의논의 대상이여야 할 남편은 나몰라라 건성으로 들어넘기는 통에 견디다 못해 한바탕하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 종내 내가 어찌 다 저런 사람을 만나 이 고생인가 싶어 더욱 비참한 기분에 싸이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생겨나고, 점점 나 혼자라는 본질적 고독과, 현실적 소외가 자신을 더욱 괴롭히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실수투성이고, 잘못의 연속성이고 결점과 단점으로 가득차 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용기다. 그런 용기로 세상을 대할 때 우리 이웃은 따뜻함으로 같이할 수 있다. 우리도 상처투성이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느 아가씨가 자살을 결심하고 전화 해왔다. 고교시절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에 낙방 후 재수하여 가까스로 그저 그런(?)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열등의식 속에서 대인관계도 원만치 못한 그런 힘든 대학생활을 보내게 되었고, 부모님의 괜한 눈치를 보게되고, 동생들에게 부끄러워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성격까지도 내성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변하여갔다. 그러다 우연하게 알게 된 남자와 깊은 사랑을 하게 되었다. 예를 갖게 되었고 남자로부터 버림받고, 중절한 후 심한 고통 속에서 자기 학대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리라. 용서해주지 못하리라는 생각으로 입이 다물어졌고, 이상해진 딸을 닦달하는 부모조차 싫어져 피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도 모든 사람 속에서 덩그러니 혼자뿐인 것은 바뀌지 않고 더욱 더 외롭고 슬프기만 하니 남은 선택이란 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속에서 우리는 여러가지를

생각케 된다. 흔히 우리는 고통과 갈등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삶을 살게된다. 때때로 이것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를 괴롭히고 이 세상의 한 구석진 곳으로, 아니 세상 밖으로 내던져진 느낌으로 처량해진다. 넓은 광야에서 혼자 서서 모진 바람을 견디어 내야하는 듯한 감상에 빠져버리기도 한다. 누군가 같이 나눌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괴로움도 혼자가 아니고 둘이 아니 여럿이 함께 나누어야만 된다. 그것은 내가 먼저 개방되는 삶으로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이웃이 먼저 내게 접근해 주어야 한다든지, 내가 털어놓을 만큼의 자세를 먼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나외에는 인정치 않으려는 편집된 자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개방된 자세 못지않게 서로를 공감하려는 수용하려는 자세도 간과해선 안되겠다. 비난이나 비판적 태도에 앞서 그만한 사정이 있으리라 짐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서로의 자세가 필요하다. 점점 소외당하는 느낌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자신감을 잃어가는 P씨에게, 그깟 운동화때문에 뛰쳐나갈 수 밖에 없었던 국민학생에게, 심지어 인생을 마감하려는 그 아가씨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는 용기이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실수투성이고, 잘못의 연속성이고 결점과 단점으로 가득차 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용기다. 그런 용기로 세상을 대할 때 우리 이웃은 따뜻함으로 같이할 수 있다. 우리도 상처투성이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위한 용기와 수용과 이해로 세상에 나서보아야겠다. †